



기
후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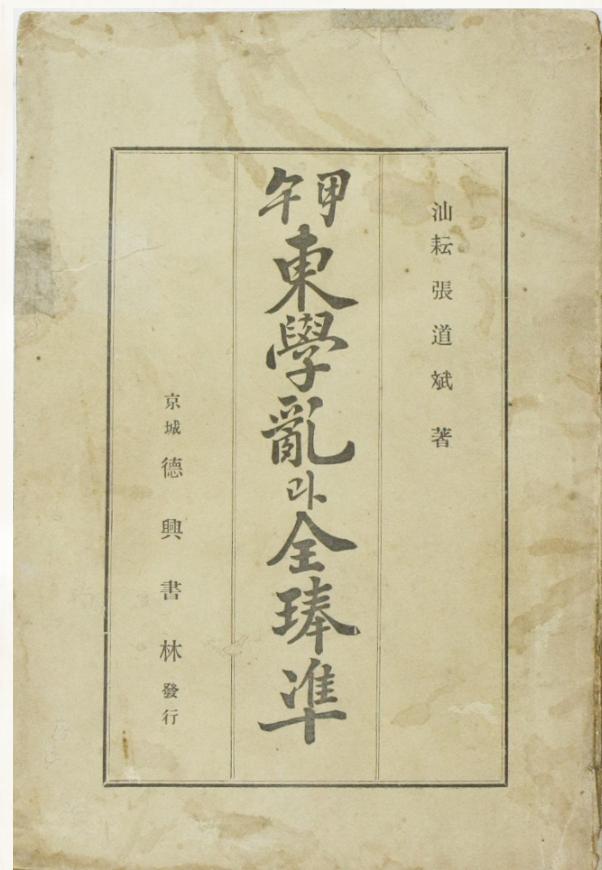
2013 가을호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갑오동학란과 전봉준
甲吾東學亂과 全琫準



산운汕耘 장도빈張道斌(1888~1963) 선생은 민족주의사학자로서 바른 한국사 연구와 국사서적 간행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힘썼으며, 약 30여 종의 역사서를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1927년에 발간된 역사서 '갑오동학란과 전봉준'에서는 “실로 전봉준이 가공한 민중을 위해 대사업을 경영하는 마음을 나타냈으니 동학란의 정신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는 언급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진보한 시각이 나타나 있어 주목된다. 이 자료는 10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Contents 2013 가을 13호

02	기념관 화보	
04	인사말	동학농민혁명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하여
06	재단 포커스1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08	재단 포커스2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10	녹두칼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앞두고 현재의 한일관계를 보며 -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하우봉
12	인터뷰 ① 동행공감	보은지역의 동학농민혁명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구왕희
16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알기	고부봉기 -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18	인터뷰 ② 발굴! 참여자유족	남원대도소, 김개남 장군의 후손을 만나다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김호영
22	만화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경상도 지역의 봉기와 전투
24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전라좌도를 대표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태홍 - 청암대학교 연구교수 성주현



26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대상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
30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고창, 순창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36	세계의 혁명	중국 근세의 천년왕국운동 - 태평천국운동 -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교수 강문호
38	동학농민혁명 도서관	여울물 소리
40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44	네트워크 소식	정읍시청,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등
48	녹두꽃 날말펴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3년 가을호(13호) 발행 2013년 9월 30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인 김대곤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homepage. www.1894.or.kr 제작 헌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간지 "녹두꽃"은 청간호(2010년 가을호)부터 이번호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119년의 유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소.
이제 우리가 나섭시다!”

말목장에서 자유와 혁명을
부르짖던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시대의 암흑에 정면으로 맞선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빛나는
지금을 누리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입니다.

지난 4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2기 이사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선양이란 재단의 설립목적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재단은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의 땀방울이 어려 있는 곳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의 정성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고, 이런 노력이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설립으로 가시화 됐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를 이어 받아 2010년 국가기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설립 4년째를 맞은 우리 재단은 이처럼 수십년 노력해오신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그 분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재단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894년 당시, 우리 선조들은 봉건의 질곡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온 몸을 던지셨습니다. 독립국가로서의 자존을 해치는 제국주의의 침탈을 목숨을 바쳐 막으려 하셨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에 되새기고, 내일의 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게 오늘을 사는 우리 후손들의 책무입니다. 이 일은 재단 혼자만의 일도 아니고, 또 재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 및 관계 전문가 여러분, 그리고 관심을 가진 많은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일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금년은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재단은 오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충북 보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은지역은 동학농민혁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보은 장내리에서 대규모로 교조신원을 위한 집회가 열렸던 곳이자, 동학농민군의 피로 강산이 물들었던 북설전투가 있었던 전적지입니다. 이처럼 뜻 깊은 보은지역에서 119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보은군과 충청북도 및 여러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단은 기념대회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념대회에 동학농민혁명 유

“

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목표로 범국가적 차원의 선양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족회 회원은 물론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동학연구자 등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인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발발 120주년, 즉 2주갑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희 재단은 120주년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를 목표로 범국가적 차원의 선양사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사회를 존재하게 한 원동력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내년의 행사는 전 국민이 아끼고 동참해야 할 거국적인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120주년 기념사업을 전 국민이 함께 하는 추모와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첫 삽질은 120주년의 주요 행사이자,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에 매우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났던 대혁명이

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민주사회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신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정신적 문화유산이자, 더욱 소중하게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자산입니다. 동시에 이 정신은 인류가 추구하는 목표와 궤를 같이 하는 세계적인 정신입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에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널리 알려져 온 국민의 마음 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따뜻한 성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분들이 꿈 꾸었던 세상을 같이 꿈 꾸고 함께 만들어 가기를 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개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계승 · 발전과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위상 재조명을 위해서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대회'가 2013. 10. 17.(목) ~ 10. 18.(금) 충북 보은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119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보은군,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후원하는 이번 기념대회는 기념식, 유족의 밤, 기념 강연회, 정기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첫째 날 행사

13. 10. 17(목)

- 동학농민혁명 정기 학술대회
 - 주 제 : 1893년, 동학농민혁명 전야(全夜)
 - 장 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 대 상 : 참여자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대학생, 지역민 등
 -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 '유족대상'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 장 소 :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대 상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150여명
 - 주 관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유족의 밤’
 - 장 소 :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대 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지역민 등
 -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 119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둘째 날 행사

13. 10. 18(금)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기념 초청 강연회
 - 장 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대강당
 - 대 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언론 관계자, 지역민 등
 - 주 제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와 기념일제정 필요성
 - 주 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장 소 : 보은문화예술회관
참석대상 : 참여자 유족, 관련단체, 관련학자, 언론 관계자, 보은지역 주민 등
주최/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 제119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 일정

10:00 – 10:40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10:40 – 11:00 식전공연(놀이마당 ‘울림’ 창작공연)
11:00 – 11:10 국민의례
11:10 – 11:40 대회사 및 축사인사말
11:40 – 11:55 120주년 슬로건 공모전 시상식 등
11:55 – 12:00 폐회선언 / 기념사진 촬영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다.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통해 법이 정한 목적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지속가능한 정신선양 재정기반의 확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조직 역동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 동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사업은 동학농민혁명 기념 및 추모사업, 동학농민혁명 연구소 설립 · 운영,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자료관 운영, 동학농민혁명 관련자료 수집 · 관리 · 보존 · 전시 · 교류사업,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사업,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계승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말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법정기부금이란 이월결손금이 없는 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 기업 또는 개인이 특별한 관계가 없는 기관(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명가액 중에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격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난 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손금 처리하는 제도이다.
- 또한 법정기부금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할 것이며, 감독관청의 승인절차를 통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 재단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을 통해 관련 기업이나 후원자에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라는 장점을 제공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동학농민혁명이 세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는 기폭제역할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법정기부금 기부자 손비인정

- 법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내에서 손비인정
- 개 인 :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100%내에서 손비인정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4년간 388억 투입, 정읍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 추모공간·연수시설 등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으로서 위상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상기 조감도는 실시설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자주, 평등, 개혁을 향한 민주주의 교육의 새로운 場으로 활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김대곤)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동학농민 혁명에 참여하여 희생된 선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복돋우며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코자 2014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북 정읍의 황토현전적지에 10만여 평 규모의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388억원이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 조성이 추진될 예정으로, 정부로부터 2014년 예산안에 15억 3천만 원이 반영된 기본설계비 등을 활용하여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즉 2주갑을 맞이하는 내년부터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기본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기념공원조성을 통해 추모공간, 연구소, 연수동, 체험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1894년 당시 참여자들을 참배할 수 있는 추모공간과 전국의 수 학여행단을 비롯한 단체별 다양한 역사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연수숙박시설이 포함되어, 이를 통해 역사교육과 체험분야의 활성화를 꾀하여 콘텐츠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잠시 방문하는 공간이 아닌 머물면서 역사교육을 받는 공간으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주변 유적지 및 관광지와 연계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봇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은 모든 백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밖으로는 외세에 대응하자는 ‘보국안민’, ‘제폭구민’, ‘척양척왜’의 정신으로 자주, 평등, 개혁 등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을 고양하는 근대사의 획을 긋는 사건으로서, 이를 발전시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기념공원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확보에 주력한 김대곤 이사장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에 그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공원이 국가예산으로 첫 삽을 뜨게 되어 무척 기쁘다’며 ‘아무쪼록 국회에서 기념공원조성 사업비와 120주년 기념행사예산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 각종의 관심 있는 자들의 많은 협력이 필요한 때’라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를 보면



하우봉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인문대학장 | 박물관장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 한일관계사학회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전북사학회 회장 역임 |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전공 | 70여 권의 저역서와 100여 편의 연구논문이 있음.

1894년의 동학농민혁명은 주지하다시피 1차 봉기와 2차 봉기로 나누어진다. 전자가 봉건주의를 타파하고자 했던 반봉건혁명이었다면 후자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를 기치로 내세운 반제국주의 투쟁이었다. 필자는 동학농민혁명이 2차 봉기에서 보인 반제국주의 투쟁이 있었기에 역사적 의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 2차 봉기는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기에, 1차 봉기에서 나누어졌던 남접과 북접 간의 갈등도 용광로 속에 녹아들었으며, 거대한 혁명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차 봉기는 제국주의적 침략세력에 대한 배척을 표방하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직접적인 침략세력이었던 일본에 대한 저항운동이 중심이었다.

내년이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된다. 농민군들이 부르짖었던 ‘극일(克日)’은 오늘날 어떤 상황에 있을까? 최근의 한일관계를 보면서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의 일본은 수준 이하의 언설과 행동들이 횡행하는 상황에 있다. 올해 들어 아베 신조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종군위안부 발언이 이어지더니, 최근에는 아소 타로 부총리와 시모무라 하쿠

분 문부과학상도 망언릴레이에 가세하였다. 이들 일본 정치인들의 언동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다. 고위급 정치인의 역사인식이 이 정도로 천박할 수 있는지 놀랍기까지 하다. 그들의 발언 가운데 세계문명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이 어디 한 줄이라도 있는가? 또 그들의 인식 속에는 한국인에 대한 전통적 멸시관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국력과 국가적 품격의 하락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으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아시아의 이웃나라들로부터 경원시 당하였으며, 존경은커녕 친구로서의 진정성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2차 세계대전 후 전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천황제라는 일본 특유의 제도와 맞물려 있어 간단히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2차 세계대전 후 ‘신생 일본’의 출발에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속죄로부터 출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 태평양전쟁의 패배 후 일본은 미국에

게 항복의 뜻을 표하면서도 침략을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패전 직후 미국에 의한 타율적 개혁, 냉전체제로의 돌입이라는 상황이 일본의 주체적인 역사인식과 자기성찰을 불분명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실상을 말한다면 일본은 미국의 논리에 편리하게 순응하면서 아시아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도망쳤다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본래 탈아론적 아시아관과 대동아공영권론 같은 사고방식에서는 아시아에 대해 사죄한다는 발상이 나올 수 없다. 심지어 한국에 대해서는 패전의식도 없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 져 한반도를 ‘상실’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에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책임 문제가 빠지게 된 것은 당연하기도 하다.

전후 일본의 보수파들은 꾸준히 ‘패전’과 침략전쟁 자체를 부인하여 왔다. 최근 일본 국회에서 행해진 아베 수상의 침략을 부인하는 발언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전후세대들에게는 식민지 지배와 같은 과거사는 자신과 상관없는 문제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들에게서는 ‘전전(戰前) 세대’들이 지녔던 일말의 원죄의식마저 거의 사라졌다. 이는 전후 일본 역사교육의 결과이기도 하다. 일본은 침략전쟁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신세대에게 역사교육을 바르게 시키고, 가해자의식의 원점에서 새출발 해야만 아시아와의 진정한 화해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은 뿌리 깊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과성 현상만은 아니다. 갈등의 바닥에는 상호인식의 틈이 있고, 역사인식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다. 그러나 양국은 그야말로 숙명적 관계이며,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시대의 21세기에 한일 양국은 평등한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호적인 상호이해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구조의 형성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민의 새로운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입장에서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깨끗한 청산과 확고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아시아 속의 일본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도, 일본인의 인간으로서의 해방을 위

”

새로운 구조의 형성을 위해서 한일 양국민의 새로운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

해서도 필요하다. 아시아인들끼리의 진정한 화해와 성숙한 만남을 위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죄할 수록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잘못을 인정하면 호국영령을 모독하게 된다는 발상은 너무나 소아적인 인식이다. 엄연히 존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오는 명예를 언제까지 지고 갈 것인가? 명확한 인정과 반성 위에 상대방의 이해를 얻어내는 것이 훨씬 뜻밖하고 성숙한 태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근대혁명이 아닌 농민혁명으로부터 출발한 아시아적 모델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다 치밀하게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을 새로운 의미에서 바라보는 일이 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두 갑자는 더 큰 이벤트가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보은지역의 **농학농민혁명**을 전국에 알리겠습니다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겸
제119주년 기념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 **구왕회**

1893년 충청북도 보은에는 2만여 명의 동학도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우리들 수만이 죽기로서 힘을 합하여 일본과 서양오랑캐를 쓸어 대보(大報)의 의리를 본받고자 한다’며 척왜양의 기치를 내건 통고문을 내걸었으니 이가 바로 보은집회였다. 또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은 보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으며, 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최시형 교주의 명이 떨어지자 곧바로 충청도 지역의 수많은 농민군들이 일제히 봉기하였다. 이러한 보은에서 오는 10월 17일(목)부터 10월 18일(금)까지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가 열린다. 기념대회를 주관하게 된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구왕회 회장님을 만나 기념대회 개최에 대한 감회와 보은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들어보았다.

Q

**구왕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보은에서 유선방송사를 운영하다 2002년부터 보은문화원 부원장으로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던 중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접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02년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발족해 해마다 개최되는 보은동학제를 주관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신임 문화원장으로 선출되어 현재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 보은문화원 원장, 보은군체육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Q

**올해 10월에 119주년
기념대회를 보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
겠습니다.**

A

보은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에 보은읍 강신리에서 펼쳐진 북실전투 위령제와 천도교가 주관하여 장안면 장내리 속리초등학교 교정에서 열린 보은취회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은지역에 국한되어있던 동학농민혁명 행사들이 이번 119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전국적인 행사로 거듭나 보은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임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이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Q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
업회는 어떻게 설립되었
습니까?

A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이후 보은문화원에서는 보은지역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임을 알리고자 1999년에 범군민 보은동학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독립된 민간단체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입어 2002년에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본격적인 선양사업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Q

기념사업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습니까?

A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동학농민혁명 유족발굴사업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셋기지 않은 상처가 보이지 않게 남아 있어 유족발굴사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선대 분들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두었습니까만, 아직도 밝히고 싶지 않은 상처로 생각하는 후손 분들의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Q

**보은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A

보은읍 성족리에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조성되어 북실전투와 보은집회를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원 활성화를 위해 기념관을 세우고 상징물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은집회가 있었던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일대에는 현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시설이 부족해 추후 보은취회기념관을 건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보은에서는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동학농민혁명
이 전개되었습니까?**

A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후 보은지역은 마지막 전투지 중 한 곳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감시의 대상이 되었고 후손들은 그로 인해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했던 빼아픈 상처를 안고 있기에 유족은 물론 당시 구체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등록 사업을 통해 후손들이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유족등록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Q

**보은에서는 동학농민혁
명과 관련하여 어떤 사건
들이 있습니까?**

A

보은지역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1893년 3월 중 20여 일 동안 해월 최시형 선생을 중심으로 보은집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당시 광화문 복합상소가 실패로 끝나자 대도소가 있었던 장안마을(지금의 보은군 장안면 장내리 일대)에 적계는 2만 많게는 7만 여명의 동학교도들이 장안마을을 향해 보국안민, 척왜양창의 깃발을 걸고 집결했습니다. 아울러 백범 김구 선생 역시 황해도 일대 두령들과 함께 1893년 가을에 장안마을에 찾아와 해월 최시형 선생을 뵙고 간 사실이 백범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막바지에 동학의 지도부와 동학농민군 5,000여명이 북실마을로 집결해 마지막 전투를 준비했고 2,500여명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북실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A

동학농민혁명은 한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 이후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과 지역민들이 느끼는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체감은 그리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전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보은 지역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유족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족 발굴 사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지속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부농민봉기에 관하여

사발통문 봉기계획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나온 결과물이며 고부농민봉기 역시 이에 대한 실천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은 고부라는 지역적 조건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를 뛰어 넘어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왜 고부에서 일어났는가?

왜! 1894년 1월, 전라도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는가? 그 답은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이라고 말한다. 그러한 설명이 틀린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맞는 답도 아니다.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고부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역사기록과 출토된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 보면 삼한시대 이전부터 고부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고부는 자연지리적 조건이 매우 유리하였다. 고부는 지형적으로 전라도 서부평야지대와 전라도 동부산간지대의 접점에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평야지대와 산간지대에서 생산되는 물산과 문화를 모이게 하였다. 그래서 조선시대 고부를 중심으로 한 장시 체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또한 고부는 동진강과 만경강을 기반으로 하여 광활한 농토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시대 단일규모로는 상당히 큰 규모의 평야지대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

지리적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은 고부문화권의 형성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부문화권의 형성

고부를 중심으로 경제권이 형성되고 통훈권(通婚圈)이 성립되었으며 생활의 단위가 됨에 따라 고부는 인근지역을 포괄하는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부문화권의 형성은 행정체제로도 연결된다. 조선시대 고부군은 전라도 일대에서 전주부 다음으로 큰 규모라고 할 만큼 위세 있는 지역이었다. 조선초에는 전주부윤(全州府尹)이 종2품이고 현령이나 현감들이 종5품이나 종6품인데 반해 고부군수는 종4품이었다. 한때는 정3품 당하관(堂下官)인 통훈대부가 고부군수로 임명된 경우도 종종 확인된다. 이는 한편으로 수탈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과거의 고부군민이 만만찮은 위상을 누리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부문화권의 형성은 고부민들에게 사고와 인식의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게 하였을 것이다.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은 악랄한 방법으로 수탈과 착취를 자행하였다. 『전봉준공초』 등에서 드러난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만석보(萬石洑) 아래 새로운 보를 쌓을 때, 고부군민들을 사역하면서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확이 많이 나는 논에 대해서는 세를 징수한 일
- ② 백성들에게 황무지를 개간하도록 허가하면서 세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추수 때에 세를 징수한 일
- ③ 불효(不孝), 불목(不睦), 음행(淫行), 잡기(雜技) 등의 일로 죄목을 날조하여 고부군민에게 돈 2만 낭을 강제로 빼앗은 일
- ④ 태인 군수를 역임한 조병갑의 아버지 조규순을 위한 비각을 짓는다고 천여 낭을 강제로 징수한 일
- ⑤ 대동미(大同米)를 징수할 때 1결(結)당 정백미(精白米) 16두씩을 돈으로 환산하여 징수하고 조선정부에는 질이 안 좋은 쌀을 사서 1결당 12두씩 상납하여 차액을 모두 착복한 일
- ⑥ 만석보를 쌓을 때, 백성 소유의 산에 있는 수백년 된 나무를 강제로 벌목한 일
- ⑦ 고부 경내에 집을 짓고 첨을 살게 하였는데, 집을 지을 때 백성을 사역하면서 요역을 시킬 때보다 더 심하게 닦달한 일
- ⑧ 계사년(1893)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부 북부지역은 흉년이 들었지만 남부지역은 조금 수확이 있었는데, 조병갑은 전라감영에 보고하여 북부 4개 면의 세금을 탕감 받았으나 감영에서 세금 탕감을 승인받지 못하였다. 고 속이고 북부 4개 면의 전세를 남부에 배가하여 억지로 받아내고 북부에서는 전세를 남부로 전가하여 받아냈다고 공로를 과시하면서 농민들에게 무거운 보상을 요구하여 추가로 세금을 거둔 일
- ⑨ 풍년이 든 해에도 방곡령을 내리고 측근들에게 미곡을 매집하게 한 후 쌀값이 폭등할 때 이를 방매하여 폭리를 취한 일

이러한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는 당시 조선에서만 연되어 있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그 강도가 특히 심한 것이었다. 당시 고부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강

도 높은 수탈과 착취과정에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꼈을 것이다. 고부민들이 처한 자연자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은 당시 조선의 다른 지역에 비해 좋은 것이었으며 그로 인해 큰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가 엄청난 강도로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다른 지역 백성들 보다 훨씬 심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전봉준의 치밀한 준비

고부문화권의 형성,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에 따른 고부민의 상대적 박탈감만으로 고부농민봉기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되지 않는 점이 있다. 그것은 누가 이를 기획하고 이끌어 나갔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곳에 전봉준이 없었다면 고부농민봉기가 실현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전봉준은 1892년 교조신원운동 단계인 삼례집회 때부터 등장하였다. 이때부터 전봉준을 중심으로 조선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형성되었으며 그는 이를 기반으로 끊임없이 변혁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해 나갔다. 사발통문 봉기계획은 이러한 기반위에서 나온 결과물이며 고부농민봉기 역시 이에 대한 실천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전봉준은 고부라는 지역적 조건과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가 자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를 뛰어 넘어 전국적인 봉기로 확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결국 고부농민봉기는 고부문화권의 형성에 따라 이루어진 고부민의 공통된 사고와 인식의 기반위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수탈과 착취로 인한 고부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조선사회의 변혁을 지향하는 전봉준의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신순철 · 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김은정 · 문경민 · 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홍금수, 「역사지리학에서 본 고부지역」, 『고부문화권의 재인식』, 정읍시, 2000

나눔원대도소

김개남 장군의
후손을 만나다

김개남 장군의 고손자 김호영



서면 백산(白山) 앉으면 죽산(竹山)

우리가 의(義)를 들어 이에 이른 것은 그 본뜻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蒼生)을 두타(塗炭)

開(개)南(남). 김개남 장군은 남쪽을 연다는 자신의 이름을 따라 남쪽, 즉 전라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그 세를 떨쳤다. 동학농민군들에게 누구보다 큰 벼팀목으로 자리 잡은 그는 누구보다 민중을 위하고 한 치의 타협도 없는 곳은 이였기에 집권층은 그를 정식적인 재판을 거치지도 않고 임의로 처형할 만큼 두려워했다. 지난 2010년 임실군 학암리에 김개남 장군의 실묘위치가 확인되어 8월과 10월 2차에 걸쳐 유해발굴이 이루어졌으나 결국 찾지 못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정신은 후대로 이어져 내려와 현재 장군의 고손자 김호영 님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방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고조부의 뜻을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지키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김호영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개남 장군의 고손자인 김호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근무 중입니다. 동학농민혁명유족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기념관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2년 반 가량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Q

고조부님에 대하여
주로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A

고조부님의 시제 때가 되면 조부님과 부친께서 고조부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특히 부친께서는 고조부님의 후손이라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고조부님의 시제는 저희 집안에서 대를 이어서 지내오고 있으며, 시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Q

현재 정읍시 산외면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김개남 장군님
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또, 묘역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A

저희 집안은 고조부님 때부터 계속 이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고조부님의 묘역도 이곳에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고조부님의 묘역은 제 부친께서 조성하셨는데 당시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아 묘역 조성비를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읍시청에서 재작년에 묘역 주변에 둘레석을 만들어주었고 제초 등 일부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는 제가 도맡아 해오고 있습니다.

Q

그분들께서 해주신 김개남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
려주실 수 있습니까?

A

동학농민혁명 당시 고조부님을 따르던 농민군 몇 천 명이 집 뒤의 터에서 3일 가량 묵어 간 일이 있어 고조모님께서 그들을 위해 밥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고조부님께서 떠나가실 때 10리 가량을 마중하고 돌아오신 뒤에도 아직 자리를 뜨지 못한 농민군들이 남아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숫자였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외에는 고조부님의 일을 언급하기 꺼려 하셨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 이후 집안에
화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A

왜정 당시 누군가가 조부님이 김개남 장군의 후손이라 밀고하여 서에 끌려가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칫 큰일을 당하실 뻔 했지만 다행히 그곳에 아는 분께서 조부님을 대변해 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주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때였지만 그때도 조상이 동학농민혁명에 가담했다는 것을 신고하면 꼴찌없이 잡혀가야 했던 거지요. 부친께서도 성을 박씨로 바꿔 생활하신 기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에 더욱 고조부님에 대한 언급을 꺼리게 되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김개남 장군 묘역



“
고조부님의 유해 발굴 작업이
성과 없이 종료되었지만 언젠가는
제가 주도하여 발굴작업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Q

2010년에 김개남 장군님
의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
했으나 성과없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A

고조부님의 유해 발굴 작업은 임실군 학암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제보로 고조부님의 유해 위치가 알려져 유해발굴팀이 구성되었고 2010년 8월, 10월에 두 차례 발굴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성과없이 종료되었습니다. 3차 발굴 계획이 있었으나 실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주도하여 발굴 작업을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조부님께서 혁명을 주도
하여 동학농민군을 이끄
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A

그 분의 고손자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족 분들이나 기념관을 찾아오시는 관객 분들이 저를 처음 보시는데도 반갑다며 악수를 청하시는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대 분들께서 고생하신 것에 대한 보답을 제가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죄송하고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고조부께서 남기신 유물
을 보유하고 계신 것이 있
으십니까?

A

현재 최시형 교주의 사진과 손병희 선생님의 사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시형 교주님께서는 고조부님의 집에서 자주 묵어가실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다고 합니다. 물론 동학농민혁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고조부님께서 남겨두신 유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조부께서 그 유물들이 혹시 해가 될까봐 땅속에 묻어두셨다가 그래도 불안하셨는지 다시 파내어 불태워버리셨습니다. 고조부님의 유물이 사라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중조부님의 판단으로 집안에 큰 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화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경상도 지역의 봉기와 전투

그림 김대한



경상도 지역의 봉기는 북서부 지역인 예천, 상주, 김산 등과 남서부의 하동, 진주 등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력 농민군의 봉기를 앞뒤로 경상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등지에서도 농민군들이 봉기하였다. 경상도에서는 9월 말까지 60여 군현에서 봉기가 이루어 졌다.



예천의 농민군들은 3월부터 최맹순의 지휘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7만 여명의 농민군이 모여들었다.

예천 읍내에는 민보군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농민군은 민보군에게 글을 띠워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려 했다.

최맹순



그러나 여러 차례 마찰 끝에 8월 28일 결전을 벌였고, 민보군의 기습으로 농민군은 패퇴하였다.



상주에서는 김현영을 대장으로 한 농민군이 활동하였다.

우리는 상주 광야와 선산 광야를 점령했다오.

이들은 기세를 몰아 낙동과 해평에 있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공격 할 계획을 세웠으나 오히려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물려섰다.

일본군을 당에 넣어
제 꾸이 일소.
지금은
안방 끌려나옵니다. !

편보언



김산(지금의 김천 지역) 일대의 농민군은 도진강 편보언의 지휘 하에 3월부터 활동했다.

농민군은 김산을 장악 하였지만 대구 감영의 관군들이 10월 5일 김산에 주둔하면서 활동을 멈추었다.

관군의 길을 막아
서 있으니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군.

이렇게 예천, 상주, 김산의 농민군들은 주력 농민군과 연계하지 못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벌이다 진압되었다.

최맹순

김현영

편보언

경기도 남부지역
하동은 9월 재봉기
직전 김인배가 경상도 지역으로 세를 넓히면서 격전장이 되었다.

내가 영호대장을
모두 끌어내리자!!
모든 길을
비켜라!!!!

이 싸움에서 농민군은 큰 승리를 거두어 하동부를 정복하였다. 하동에서의 승전은 주변 농민군들을 고무시켜 여러 지역에서 봉기가 이어졌다.

우리도 광안배 장군을 따라 나설시다. ~

으스!!
일본 농노에게
파급한 마을
보여줍니다!!!

봉기에 동참한 지역의 농민군들은 김인배가 이끄는 호남 농민군과 함께 진주성에 집결하여 인근 지역을 오가며 활동을 펼쳤다.

싸우자 ~~
이기자 !!
승리는 우리
피와세 ~

그러나 이들은 일본군과 관군의 연합
부대에게 크게 패퇴하여 경상도
지방에서 농민군의 활동은 마무리 되었다.

일본 농노들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하는데
우리와 같이
부족에 아십구나
~~



전라좌도를 대표하는 동학농민군 지도자

성주현(청암대학교 연구교수)

유태홍

동학에 입도하기까지 | 향암 유태홍(柳泰洪, 1867~1950)은 1867년 9월 2일 전라도 남원 이백면 주지봉(周智峯) 아래 목두리(木斗里)에서 아버지 유복렬(柳福烈, 1839~1879)과 어머니 순흥안씨(1838~1919)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본관은 영광으로 중조 유자택(柳資澤)의 18세 손으로 누대에 걸쳐 남원에 세거하였다. 유태홍의 원명은 시홍(時洪)이고, 자는 사홍(士興), 호는 향암(香菴)이다. 유태홍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은 없지만, 범상치 않아 커서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13세에 아버지를 여읜 유태홍은 청소년기를 어렵게 보내면서 조선말기 만연된 부조리에 적지 않은 불만이 있었다. 그러던 차 남원일대에 동학이 포교되자 1889년 동학에 입도하였다.

1893년, 교조신원운동의 현장에서 | 동학에 입도한 이후 유태홍은 남원대접주 김홍기, 그리고 함께 입도하였던 김영기, 김종우 등과 더불어 동학의 포교에 전념하였다. 그로 인해 1889년 말경에는 수천 명에 달할 정도로 남원지역 동학의 교세는 크게 신장하였다. 2년 후인 1892년 동학교단에서 동학의 공인과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이해 거울 전주 삼례에서 교조신원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때 유태홍은 남원지역의 동학교인 수백 명을 지휘하여 참여하였고, 전봉준과 함께 전라 좌우도를 대표하여 소장을 전라 감영에 제

출하였다. 이로 볼 때 삼례교조신원운동에서 전라 좌도를 대표한 유태홍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듬해 1893년 정월에는 전봉준이 창의문을 지어 각 관아에 붙일 때 유태홍은 구례지역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유태홍은 이해 2월 8일 광화문에서 전개한 교조신원운동에도 참가하였다. 이어 보은에서 개최된 척왜양창의운동에도 참가하고자 하였지만 거리와 시간상 보은에 이르지 못하고 원평에 모여서 척왜양창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원평에서 보은으로 가려고 진산에 이르렀을 때 보은의 동학교인이 해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남원으로 되돌아왔다.

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다 | 1894년 1월 10일 고부기포를 기점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유태홍도 이에 적극 참여하였다. 하지만 유태홍은 고부기포와 무장기포, 그리고 백산대회 등으로 이어지는 1차 동학농민혁명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남원지역에서는 직접 동학군이 기포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봉준이 전주성을 점령하고 호남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자 남원지역의 동학 세력은 보다 적극적으로 혁명 대열에 동참하였다. 김개남이 남원에 진주하면서 남원지역의 동학군은 폐정개혁을 단행하는 등 집강소 통치를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시기에 유태홍 역시 동학농민혁명



대열에 적극 참여하였다. 6월 25일 남원에 주둔한 김개남은 오영(伍營)을 두는 한편 성찰(省察), 통찰(統察) 등 수십 명을 두었는데, 유태홍은 김개남을 도와 동학 조직을 체계화하는 한편 폐정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민보군과의 대결 | 한편 동학농민혁명의 2차 기포 이후 김개남이 청주 방향으로 북상하자 유태홍은 김홍기 등과 함께 남원의 동학농민군 조직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동학세력에 눌려 있던 유생들은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군 진압에 적극 나섰다. 민보군 조직의 중심지역은 운봉이었다. 운봉은 지리적으로 지리산 등 산악으로 둘러싸인 고원지대로서 호남과 영남을 잇는 전략상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동학군도 운봉 진출을 여러번 시도하였다.

운봉에서는 여전히 박봉양이 민보군을 조직하여 동학군에 대항하였다. 박봉양이 조직한 민보군은 운봉뿐만 아니라 함양을 비롯하여 진주, 산청, 안의 등지의 유생들도 참여하였다. 민보군은 10월 24일 남원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민보군이 3일 후 관속들에게 성을 맡기고 운봉으로 돌아가자 유태홍은 10월 25일경 남옹삼, 이규순 등과 더불어 남원성을 다시 점령하였다. 남원성에 재집결한 동학군은 전세를 정비하는 한편 민보군과 관음치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치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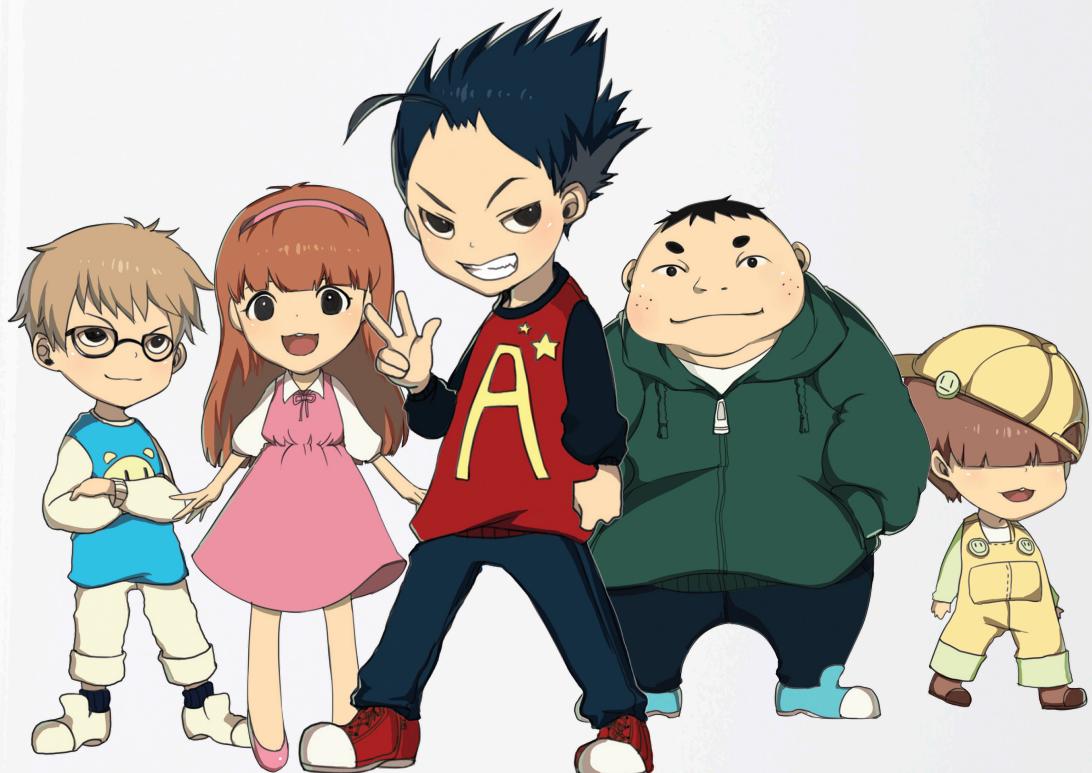
남원성 전투와 그 이후 | 관음치 전투에 참여하였던 유태홍은 11월 14일 새벽 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민보군과 치열한 일전을 벌였다.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 동학군 측은 이용구, 박중래, 고한상, 조한승, 황문경 등 주요 접주를 포함하여 2천여 명이 희생되었다. 유태홍은 동학군을 이끌고 남원성으로 후퇴하여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수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1월 28일 운봉과 남원의 민보군이 연합하여 남원성을 공격하자 유태홍이 이끄는 동학군은 끝내 수성하지 못하고 성을 내주었다. 유태홍은 남원성 전투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동학군 5백여 명을 이끌고 순천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순천의 민보군에게도 패전하여 마침내 해산하고 말았다. 이후 유태홍은 유리결식하면서 지리산 등지에서 숨어 지냈다.

동학농민혁명 이후 떠돌아다니며 은신생활을 하던 유태홍은 동학에 대한 탄압이 진정되자 1895년 가을 고향으로 돌아와 옛 동학 교인들을 찾아 교세를 회복하는데 진력하였다. 이후 유태홍은 천도교 남원교구를 설립하는 한편 3.1운동, 신간회운동 등 일제강점기 남원지역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찾아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전승이야기부분 대상을 수상한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찾아서'(최성기, 이영근, 황다비 공저, 애니메이션스토리)의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난 이야기 –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이 교룡산성에 도착하자 무관별장들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사발통문 조각을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길을 비켜준다. 아이들은 교룡산성을 철저하게 탐색하여 버려진 우물 안에서 사발통문 조각을 찾아냈으나 조덕배 일당이 그들을 뒤쫓아 들어와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인다. 김개남 장군은 호동의 몸에 빙의하여 조덕배 일당들을 혼내주고 일행을 위기에서 구해낸다. 교룡산성을 떠나 두 번째 사발통문 조각을 찾기 위해 백산으로 향하던 중 명석과 에디는 일행과 떨어져 길을 잃게 되고, 손화중 장군의 인도에 따라 백산을 찾아간다. 길을 따라 걷던 손화중 장군은 회상에 잠긴다.



부패한 고부 군수 조병갑을 내쫓고 해산한 농민군들에게 찾아온 것은 안핵사 이용태의 탄압이었다. 그는 고부봉기의 참여자들을 찾아낸다는 이유로 군졸을 풀어 농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고 폭행하였으며 봉기에 참여한 자들을 무참히 살해하였다. 조병갑에게 승리를 거두었던 농민들은 이에 맞서 다시 한 번 자진하여 결사의 뜻을 모았고, 전봉준 장군과 손화중 장군은 무장에서 기포한 뒤 모든 농민군들에 백산에서 집결할 것을 알렸다. 전라도 지역의 거의 모든 농민군들이 백산대회에 참여하였다. 총대장으로 선출된 전봉준 장군은 각지에서 모여든 농민군들 앞에 서서 포고문을 발표하였으며 총관령, 총참모, 영솔장으로 임명된 5대 장군의 이름을 호명하였다. 백산에서 군세를 정비하고 완연한 군대의 모습을 갖춘 동학농민군은 태인 관아를 점령하고 금구현 원평까지 진군하였다. 그러나 전주에서 김영병이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일시 남하하여 고부 황토재에 진을 쳤고 그들을 추격해 온 김영병도 황토재 아래 진을 쳤다. 정식으로 훈련받은 김영병은 동학농민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기에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에게 승리하여 사기를 드높이는 것이 혁명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되리라는 것을 손화중 장군은 잘 알고 있었다. 이리저리 고민하던 손화중 장군은 한가지 꾀를 내었다. 깊은 밤에 모두가 잠든 것처럼 위장하고 숨어서 김영병들이 야습을 해오길 기다리다가 역으로 기습을 하자는 계책이었다. 불을 모두 끈채로 기다리자 예상대로 김영병이 야습을 시도하였고 아무것도 모른 채 진지 깊숙이 들어온 그들은 농민군에게 완전히 포위당하여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었다. 이 전투가 바로 농민군의 힘을 부패한 관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준 황토현 전투였다.

“잠깐!” 최경선 장군이 일행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나무 위로 날아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올라오던 산 길 부근에서 수상한 무리가 따라오는 것이 보였다. 일행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낸 최경선 장군은 홀로 나무 사이에 숨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서너명이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이곳저곳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최경선 장군은 가까운 풀숲 사이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는 갑작스럽

게 나타난 최경선 장군을 발견하고 의아해했다. “영감, 여기서 뭐하는 거요? 여긴 주인 있는 산이니까 당장 내려가시지.” 최경선 장군이 느릿한 어조로 대답했다. “이 곳은 누구의 땅도 아니오. 백성들의 의지가 서린 곳이며, 누군가의 피로 적신 곳일 뿐.” 장군의 말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대꾸했다. “웬 산신령 같은 영감이야? 여기는 조덕배 사장님의 땅이란 말이오! 말이 안 통하면 산 아래로 패대기 쳐버리는 수가 있어!” 그가 말을 마치자 최경선 장군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남자들은 깜짝 놀라 혀둥지등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형님, 그 영감 혹시 귀…귀신 아니에요?” 잔뜩 어깨를 움추리트린 채로 말하자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호통을 쳤다.

한편 오동단은 큰 나무 밑에서 다른 일행을 기다린다. “참나, 명석이는 왜 이렇게 안오는 거야? 뱃가죽이 등가죽에 불을 것 같아…….” 호동이가 꼬르륵 거리는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다. “걱정 마, 호동아. 네 배는 아직 빵빵하다구.” 태일이 웃으며 대꾸하자 아이들과 장군들이 다함께 하하호호 웃는다. 그 때 명석의 목소리가 들린다. “얘들아~!” 명석이와 에디가 그들 쪽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한참동안 말을 못 잊고 숨을 몰아쉬어댔다. 디솜이가 에디의 등을 두들겨 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뛰어온 거야?” 명석이는 숨을 몰아쉬며 찡그린 얼굴로 자초지종을 설명한다. “수상한 사람들이 뒤를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 산이 조덕배의 것이라면서 우리를 끌어다 내쫓으려고 했어. 헱, 손화중 장군님과 최경선 장군님은 정상에서 그들을 막겠다면서 우리끼리 여기로 보낸 거야.” 전봉준 장군이 말한다. “동학농민군의 집결 아래로 백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 이 곳은 오로지 백성의 순수한 의지가 모여들었던 곳이지. 우리도 장군들을 도와야 할 것 같구나.” 나무 밑에 기대 앉아 있던 김개남 장군이 기지개를 켜며 거구를 일으킨다. “그럼 어디 한 번 가볼까?” 일행은 일제히 백산의 정상으로 향했고, 얼마 안 가 도착한 백산의 정상에는 백산창의비가 홀로 서있었다.

검은 옷을 입은 무리는 어느 덧 정상부근까지 올라왔다. 여전히 주변 풀숲을 마구 헤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대장으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윙박지른다. “암마! 말 할 시간 있으면 나무라도 올라 찾아봐!” 사내 한 명이 나무를 오르고, 산 정상 쪽을 올려다보는 중 무언가가 반짝 하는 것을 목격했다. “어라, 형님! 저기 뭐가 있는데요!” 사내가 가리킨 백산 정상에서는 최경선 장군의 그들에게 새총을 겨누고 있다. 사내들은 정상 쪽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그들의 앞에 5대 장군들이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난 장군들을 보며 놀랐는지 선글라스 사내가 “이것들은 또 뭐야? 영감들이 단체로 소풍 왔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전봉준 장군의 소매를 잡아채려 팔을 휘둘렀지만 팔이 소매를 그냥 통과했다. 선글라스 사내는 균형을 잃고 허우적대며 넘어졌다. 최경선 장군이 손을 들어 올리자, 정상 쪽에서 돌멩이들이 날아왔다. “으아악! 대체 어디서 날아오는 거야?” 사내들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장군들은 그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획휙 날아다니며 겁을 줬다. 소스라치게 놀란 사내들은 혼비백산이 되어 반쯤 뛰고 반쯤 구르며 도망쳐 내려갔다. 정상 위의 오동단은 새총으로 돌멩이를 쏘아



사내들을 쫓아 보낸 에디를 둘러싸고 다 같이 승리의 포즈를 취했다. 그 순간 으스대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태일의 눈에 높은 나무 위에서 무언가 반짝거리는 것이 들어왔다. 태일이 나무에 올라 확인해보니 나무의 흄에 천으로 칭칭 싸인 양철통이 들어있다. 양철통을 들고 내려와 천을 풀어보자 나머지 이름들이 적힌 사발통문 조각이 나왔다. 이미 가지고 있던 조각과 발견한 조각을 합치자 문서에 적힌 이름들을 모두 읽을 수 있게 되었다. 동학농민군의 집결을 위해 백산에 올랐던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5대 장군들은 다시 한 번 옛 동료들의 이름을 읽으며 그 때의 결의를 상기했다. 그리고 이 땅 어딘가에 잡들어 있을 그들의 오명을 씻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손을 모아 맹세하였다. 장군들을 지켜보는 아이들도 마음 한 구석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태일을 시작으로 장군들의 두터운 손 위에 차곡차곡 작은 손들을 쌓으며 맹세를 보태었다.

백산의 정상에서 둘러앉은 오동단은 명석과 에디가 사온 빵을 나눠 먹었다. 사발통문의 조각을 하나 더 찾아서인지 한결 신이 난 모습이었다. “장군님들은 안 드세요?” 명석이가 장군들에게 물었다. 김덕명 장군이 흐뭇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는 이제 먹을 필요가 없어서, 어쩐지 냄새만 맡으면 배가 부르단다. 그 동안 여기저기 제삿밥 냄새만 맡고 다녔지.” 다솜이는 새침하게 빵을 떼어 먹었고, 옆에 앉은 호동이는 누가 잡아갈세라 허겁지겁 빵을 먹어 카운다. 배불리 먹고 난 호동은 만족스럽다는 듯 배를 두드리며 말했다. “휴, 아제야 배가 등에서 떨어진 느낌이야.” 태일이 또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호동아, 네 배는 아까나 지금이나 호빵처럼 부풀었다구.” 장군들과 아이들은 모두 하하호호 웃었다.



어두운 방안에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와 몇몇 검은 옷을 입은 자들이 서 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선글라스의 사내는 부하들을 대동하고 백산에서의 일을 그에게 보고했다. “저, 사장님. 산에, 산에서 산신령이 나왔습니다! 그놈이 부하들을 데리고

저희를 그냥……!” 의자에 앉아 말을 듣고 있던 사내가 말없이 손짓을 하자 곁에 서있던 검은 사내들이 그들을 끌고 나간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아우성이 들려오지만 사장이라 불린 남자는 말없이 곁에 앉아있는 커다란 개를 쓰다듬는다. “그깟 종잇조각 하나를 못 찾아와서는……. 쓸모없는 것들.” 나지막한 중얼거린 그는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에게 손짓을 했다. 덩치 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곤 이내 문을 나섰다. 검고 큰 개가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고창, 순창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동학농민혁명에서 무장기포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 고부봉기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인식하게 된 농민들은 안핵사 이 용태의 탄압에 맞서 다시 한 번 일어서 동학농민군을 형성하였으며 포고문을 선포하여 혁명의 당위성과 그들의 의중을 전국에 알려 본격적인 혁명에 접어들게 된 시발점이었다. 반면 순창은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장면을 간직한 곳이다. 전봉준 장군이 체포되어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져버렸을 때 동학농민혁명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기에 끝이 있고, 끝이 있기에 시작이 있다는 말처럼 이 두가지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현장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기에 고창과 순창은 언제까지나 아름다운 고장일 것이다.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무장기포지

●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

폭염(暴炎)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계절이다. 사나운(暴) 불꽃(火) 두개가 타오르는, 그럼에도 생명의 약동이 가장 활발한 계절이기에 사나우면서도 아름다운(炎는 '아름 다울 담'이라고도 읽는다.) 것이 바로 여름일 것이다. 하지만 연일 올해 최고기온을 갈아 치우는 일기예보를 보고 있자면 하는 수 없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구온난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갚아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이 더위가 조금은 무뎌질까 생각하며 차에 몸을 싣는다.



무장읍성

고창의 초입에 들어서면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고창’이라는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대리석을 네모반듯하게 깎아두고 그 위에 깃발을 줄지어 세워둔 것이 그럴싸하다.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이 많은 지역이며, 유적지 또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답사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전망했다. 그러나 막상 선운사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목을 잡는다. 초입의 주차장 이후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는데다 입구에서 도솔암까지의 거리가 도보로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별 수 없이 도솔암이라 쓰인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걷기 시작했으나 30도 후반의 더위에 사실상 등산을 하다 보니 등줄기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쉬다 걷다를 반복하다 가져간 생수통의 물이 바닥을 드러낼 무렵 겨우 도솔암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선운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로 한국의 명승고찰로 유명하다. 금동보살좌상 등 5점의 보물이 있으며, 기타 지방 문화재 등 총 19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급한 일정에 천천히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후에 한 번 더 방문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자위하며 도솔암을 지나쳐 마애불로 향한다. 마침내 마애불 앞에 서자 비현실적인 느낌에 사로잡힌다. 지상 3미터의 높이에서 시작되는 세로 5

미터 크기의 마애불은 양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듯한 입체감으로 압도해온다. 명치부분의 네모난 흔적은 마애불의 전설에 대한 경외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이 마애불은 3천년 전에 살았던 검당선사의 모습을 본딴 것으로 명치부분에는 신비로운 비결이 들어있으며, ‘비결이 세상에 나오는 날 나라가 망할 것이요, 망한 후에 다시 흥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러나 비결과 벼락살이 함께 들어있어 그것에 손을 대는 사람은 벼락을 맞아 죽는다고 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전라감사 이서구가 1820년 마애불 명치를 열어보니 소문대로 비결이 들어있어 이를 꺼내보려 하였다. 그러나 마른하늘에서 갑자기 벼락이 치는 것을 보고 첫 장만 재빨리 펼쳐보고 다시 봉해버렸는데 거기에는 “이서구가 열어 본다.”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이후 1892년에 손화중 장군의 교구에서 그 비결을 꺼내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두가 벼락을 두려워했지만 오하영이라는 도인이 이서구가 열었을 때 이미 벼락을 쳤으므로 벼락살은 없어졌을 것이라 하여 손화중 장군을 비롯한 동학도들은 석불의 명치에서 비결을 꺼내갔으며 이 일은 민중들이 물밀 듯이 동학에 입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가 사실이었는지 전설에 불과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이런 소문을 들은 민중들은 동학을 일종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던 것이며, 이는 2년 후 동학농민혁명이 그 시작을 알렸을 때 농민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마애불은 커다란 상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 무장기포지

마애불을 뒤로하고 다시 한 시간 가량을 걸어 내려오니 도리 없이 기진 맥진해졌다. 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불안감도 들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선운사에서 무장기포지 까지는 고창돌레를 반 바퀴정도 도는 면 거리였다. 무장기포지 주차장에 들어서자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라는 글귀가 음각되어있는 기념비가 맞아준다. 그 옆에는 동학농민혁명포고문이 한

자로 새겨진 비가 보기 좋은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안으로 조금 걸어 들어가니 동학 농민혁명기념탑이 눈에 들어온다. 이 탑은 2002년 4월에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군에서 혁명의 참 뜻을 기리고 그 교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포고문을 선포하고 있는 전봉준 장군의 모습을 중심으로 주위에는 그에 호응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으며 탑의 상층부는 그들의 염원과 강렬한 의지를 형상화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다. 하단부에는 두루마리 형태의 동학농민혁명 포고문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 기념탑의 주위를 빙 두르고 있는 하늘을 찌르는 듯 한 죽창모양의 조각은 농민군이 분연히 떨쳐일어났음을 형상화한 것이라 한다.

기념탑을 바라보다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니 좌측 조그만 언덕에 소나무 세 그루가 서있는 것이 보인다. 이 세 그루의 소나무는 2009년 4월 25일 무장기포 115주년을 맞이하여 식재된 것으로 중앙의 소나무는 전봉준 장군, 좌측의 소나무는 김개남 장군, 우측은 손화중 장군을 상징한다. 기념식수 당시 전국의 동학농민혁명유적지 등

20여 곳에서 가져온 흙을 합하여 심었다고 한다.

무장기포지는 농민군들이 3월 16일부터 주둔하여 군사훈련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손화중 장군의 합세로 전국적인 농민혁명이라는 목표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 전봉준 장군은 주변지역의 농민군들을 무장 당산으로 집결시켰다. 사방에서 몰려온 농민군은 순식간에 4천여 명의 군세를 이루었고 이곳에서 훈련하며 관군과의 전투를 준비하였다.

짧은 머무름이 못내 아쉬웠지만 마애불에서 상당한 시간을 자체한데다 답사지가 꽤 남아있었기에 무장면에 위치한 무장읍성으로 발길을 돌린다. 고창의 외곽에서 시내로 차를 달려 무장읍성에 들어서자 보수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안내판이 빨목을 붙잡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전후사정을 설명하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성내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지 여기저기 흙무더기가 쌓여있고 인부들과 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무장읍성은 태종 17년(1417)에 만들어진 것으로 무송현과 장사현을 통합하여 무장진으로 삼았을 때 두 고을의 중간지



32

점을 중심으로 삼고 이 무장읍성을 쌓았다고 한다. 무장읍성은 옹성(성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또 한 겹의 성벽을 둘러쌓아 이중으로 쌓은 성벽)을 두른 남문과 동문이 있었으나 현재 동문은 흔적만 찾아볼 수 있다. 내부에는 객사, 동헌 등 옛 건물이 남아있어 조선시대 읍성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가지고 있다.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을 크게 물리치고 1만 명 이상의 대군으로 세를 불린 농민군은 무장을 점령하고 수감 중이던 농민군들을 풀어주었으며 동헌 등을 파괴하고 군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했다. 그리고 성 내외에 악행을 일삼던 아전이나 지주의 집을 불태웠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무장기포 출정식 행사로 진격로를 걸어 무장읍성에 도착해 무장기포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③



④



⑤

● 전봉준 장군 생가터

고창군 고창읍 죽림리에는 전봉준 장군의 생가 터가 있다. 2000년에 고창군에서 그 일대를 매입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현재는 초가집 한 채와 곳간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

전봉준 장군은 천안 전씨가 여러 대에 걸쳐 살아오던 고창 당촌에서 태어났다. 전봉준 장군의 아버지 전창혁은 서당 훈장 일을 하며 지내다 소요산 만장봉이 목구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꾼 후 1855년 음력 12월 3일에 늦둥이 자식을 두었는데 이가 바로 전봉준 장군이었다. 전봉준 장군은 어릴 때부터 체구가 작고 다부져 차돌맹이 같은 그 모습에 자연스럽게 녹두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전봉준 장군의 생가 옆에는 ‘새야 새야 파랑새야’의 노랫말이 새겨진 시비가 서있다. 백성을 위해 목숨 바쳐 봉건제도의 부정과 외세의 침탈에 맞서 싸운 전봉준 장군을 추모하는 이 노래를 앞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배우고 또 부를 것이기에 우리는 전봉준 장군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해본다.

● 고창읍성

고창읍성은 전봉준 장군의 생가로부터 차로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었다. 고창읍성은 모양성이라고도 하며 낙안읍성, 해미읍성과 더불어 가장 보존이 잘 되어있는 조선시대 읍성 중 하나다. 특히 성곽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최근 보수공사를 통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1. 동학농민혁명포고문비
2. 동학농민혁명기념탑
3. 무장읍성
4. 전봉준 생가터 시비
5. 전봉준 생가터



황토현 전투 이후 고창을 점령한 농민군들은 고창읍성으로 들어가 옥에 갇힌 동학 교도들을 석방하고 군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였다. 전봉준 장군은 규율을 엄격히 지키게 하여 농민군들이 백성들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게 하고 짚주린 이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고창읍성은 겉으로 보아도 수성에 좋은 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고지대에 위치하여 성벽을 제외하고도 자연적인 방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입구부분에는 용성이 둘러져 있고, 성벽을 따라 해자(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 밖을 둘러 파 만든 뜻)도 조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을 받는다.

이 성에는 성밟기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져오고 있다. ‘머리에 돌을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면 다릿병이 낫고, 두 바퀴 돌면 무병장수하고, 세 바퀴 돌면 극락에 간다’는 것이다. 꽤 그럴듯한 이야기다 싶은 것이, 1,700m에 이르는 성벽을 따라 오르막과 내리막을 걷다 보면 다릿병이 나을 만도 하고 여러 번 걷다보면 자연히 좋은 운동이 되어 건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을 밟아줌으로서 성벽의 돌이 더욱 단단하게 아귀가 맞아 들어가 성을 튼튼하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고창읍성에서는 읍력 9월 9일을 전후로 모양성제가 열리는데 지금도 성밟기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여인들이 성을 빙 둘러 밟아가는 모습은 무척 장관이라고 한다. 이곳을 방문한다면 성밟기를 해보며 조상들의 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⑥



⑦



● 전봉준 장군 피체지

고창읍성을 마지막으로 고창을 떠나 순창으로 향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보았으니 이번엔 끝을 볼 차례다. 우금치전투 이후 패배를 거듭하며 후퇴하던 전봉준 장군은 끝내 농민군들을 해산한 뒤 자신은 순창의 피노리에 거주하고 있던 옛 부하 김경천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그러나 믿었던 김경천의 밀고로 체포되어 일본현병 대에 인계되었으며 1895년 3월 29일 순화중, 최경선 장군 등과 함께 한 날 한 시에 처형되어 동학농민혁명은 그 막을 내리게 된다. 순창에는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은 피체지 유적비, 피체지 전시관, 전봉준 장군 동상, 그리고 전봉준 장군이 피체되는 장면을 형상화한 인형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전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던 피체장면의 인형상은 온데간데없이 철거된 흔적만이 횡하다. 의아한 마음에 관리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전봉준 장군이 피체되는 모습을 재현해 둔 것은 장군에게 누가 되는 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수렴하고 작년 가을에 철거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말이 그럴듯하기도 했지만 역사의 한 장면이 재현된 조형물이 사라졌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피체지 전시관은 실제 피체지에서 약 300m 가량 떨어진 넷가의 제방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조그만 돌벽과 무너져가는 집이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다. 피체지는 여러 나무들과 호박 넝쿨로 뒤덮여 그 모습을 찾기도 어려웠다. 주변정비와 안내문 설치가 시급하며 피체지 전시관이 실제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라 오해하는 관람객이 없도록 안내 표지판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본다.

“
고창읍성에서는 음력 9월 9일을 전후로 모양성제가 열리는데 지금도 성밟기가 연례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 6. 전봉준장군상
- 7. 전봉준 생가터
- 8. 전봉준 피체 전시관
- 9. 전봉준 피체지

⑧⑨



중국근세의 천년왕국운동

태평천국운동



동학농민혁명과 마찬가지로 태평천국운동의 발생 배경 역시 19세기 중엽 중국의 암담한 정치 사회적 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1842년 8월, 영국과의 아편전쟁 패배 결과 체결되었던 난징조약은 중국 중심 세계관의 와해에 따른 사회적 당혹감과, 막대한 배상금 및 아편수입 증가에 따른 결제은(銀)의 유출로 사회 경제적 혼란을 불러 왔다. 아울러 태평천국운동의 발상지 양광(兩廣) 지역은 지역적 격리성과 다양한 종족의 잡거와 충돌, 경제적 궁핍, 인구의 급증과 경작지 부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불안, 문화적 낙후 등으로 인해 체제 부정 의식이 강한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이 태평천국운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중국 광동성의 빈농 출신 홍수전(洪秀全)은 지방의 과거 광주부고에 네 번 실패한 후 만인의 평등과 우상숭배 금지 등을 주장하는 기독교 서적 · 권세양연(勸世良言)을 얻고 그에 근거하여 배상제회(拜上帝會)를 조직하고 지지자 규합에 나서는 동시

현재의 부정적 세계가 종말을 고하고 종교적 이상향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한 민중혁명을 천년왕국운동이라 부른다. 정치 · 사회적 혼란과 지배층의 수탈, 삼정 문란 등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이 끝나고 동학이 지향하는 이상향이 도래할 것이라는 종교적 믿음에 근거해 발생했던 한국의 동학농민혁명이나, 기독교적 평등의식에 근거해 새로운 이상향을 꿈꾸며 일어나 14년 남짓(1851~1864) 중국 강남지역을 통치했던 태평천국운동 등이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교수
강문호

에, 만인의 평등과 혁명정신을 강조하는 원도구세가(原道救世歌), 태평사회의 도래를 기원하는 원도성세훈(原道醒世訓), 사탄과 가진 자들의 잘못을 질책하는 원도각세훈(原道覺世訓) 등을 지어 배상제회의 이론적 기초를 완성하였다.

1851년 1월 11일, 홍수전은 만인이 평등한 이상사회 건설을 모토로 국호를 ‘태평천국(太平天國)’이라고 정하고 광서성 금전(金田)에서 기의하였다. 그리고 1851년 9월 25일, 홍수전이 통솔하는 태평군은 광서성 영안(永安)을 점령한 후 제후왕을 봉건하고 관제를 제정하는 동시에 태평천력(太平天曆), 태평조규(太平條規)를 반포하는 등 국가체제를 정비했다. 이것을 ‘영안건제(永安建制)’라 부른다. 1853년 3월 20일, 태평군은 마침내 중국 강남의 정치 사회 중심인 남경을 점령한 후 ‘천경(天京)’이라 개칭하고 태평천국의 수도로 삼았다.

남경 정도 후, 태평천국은 공상적 사회주의 성격이 농

후한 제반 제도를 입안,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사유재산 금지와 재화 공유원칙에 입각한 성고제도(聖庫制度), 토지의 균분(均分)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 제반 제도 및 시책을 규정했던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의 반포 시행, 남녀 평등을 기초로 시행했던 부녀자의 과거(科擧) 허용과 수전(授田), 일부일처제 등을 그 대표적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시책은 전통을 부정하는 것으로서 전통에 대한 부정과 새로운 이상세계의 건설은 바로 태평천국의 지향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전통시대의

유물인 사숙(私塾)을 금지하고 서원을 폐지하는 동시에 묘우(廟宇) 및 신상을 파괴하는 등 유·불·도 관련 각종 우상의 배격과 파괴 조치 등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남경 정도 2~3년

후 북진정책이 좌절되면서 진취적 혁명 의지는 사라지고 일부 지배층을 중심으로 편안 국면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치 사회적 계급을 앞세운 봉건적 전통왕조체제로의 회귀 및 지배계층의 내분으로 이어졌다. 즉, ‘兄 弟’로 호칭되던 태평군 상하는 ‘臣 民’ 관계로 변했으며, 개국공신들은 귀족으로 행세했다. 아울러 축첩제 및 작위 세습제의 부활, 관원의 가마 사용 등이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했던 것은 태평천국 지배층의 내분과 분열이었다. 소위 ‘천경사변’이라 불리는 천왕 홍수전과 동왕 양수청(楊秀清)의 충돌, 천왕 홍수전과 남왕 위창휘(韋昌輝)의 대립, 남왕 위창휘와 북왕 석달개(石達開)의 대립, 천왕 홍수전과 북왕 석달개의 대립 및 북왕의 조직 이탈 등을 거치면서 지도체제는 와해되었고, 그 결과 국력은 약화되었으며 구성원의 실망과 내분이 이어졌다. 결국 태평천국은 1864년 6월 천왕 홍수전의 병사 후 호남성과 안휘성의 단련(團練)을 개편한 중국번(曾國藩)의 상군(湘軍)과 이홍장(李鴻章)의 회군(淮軍)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 천경이 함락되면서 중국번에게 체포된 충왕 이수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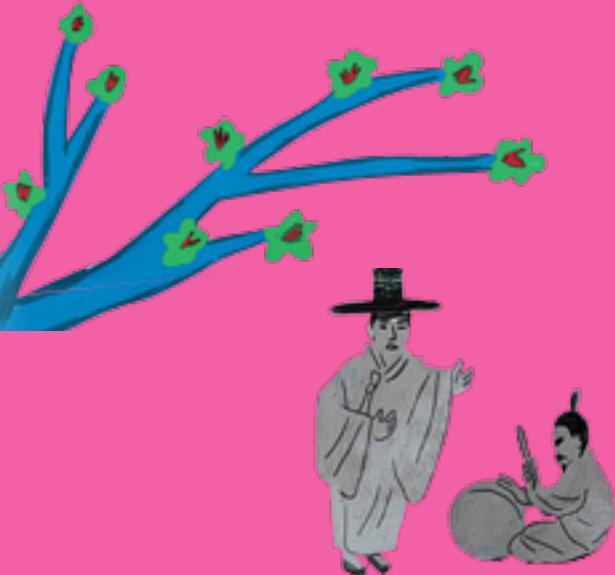
태평천국 실패의 원인으로 군사작전의 실패와 지배계층의 내분, 천왕의 정치적 무관심, 인재 등용의 문제점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에 더하여, 국가 통치 이념상 종교적 색채가 너무 강했다는 사실과, 천조전무제도나 자정신편등 현실을 무시한 이상적 제도는 호소력이 부족했다는 점, 봉건화 경향에 따른 구성원 및 민중의 이반, 태평군 내부의 지역적 대립과 반목, 지배층의 사치 향락, 중국번이 홍장을 위시한 한족 관료 및 향촌 유력세력들의 청(淸) 지지 등을 실패 원인으로 들어야 할 것이다.

태평천국운동은 중국근세혁명의 기점 이라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봉건적 전통 질서를 거부하고 기독교 교리에 근거하여 만인이 평등한 이상 사회를 건설한다는 태평천국의 꿈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그 영향은 매우 커다. 정치적으로는 태평천국 진압에 공을 세웠던 중

국번이나 이홍장 등 한족 사대부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경제적으로는 태평천국 진압 경비 마련을 위해 시행했던 화물통과세 징수 제도, 즉 이금제도(釐金制度)가 중화민국 건국 이후에도 계속되어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남녀 평등의식 고양 및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해혁명(辛亥革命) 등 그 이후의 국민혁명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이다.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손문(孫文)은 광동인으로 홍수전과 동향이었던 까닭에 그의 일대기에 익숙했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태평천국 천조전무제도(天朝田畝制度)의 토지 균분사상은 손문 삼민주의(三民主義)의 민생주의(民生主義)로, 태평천국의 만민평등사상은 삼민주의의 민권주의(民權主義)로 계승되었다는 것이라 생각된다. 태평천국 운동은 종교적 이상향의 도래를 바라는 민중혁명, 즉 천년왕국 운동이었지만 동시에 중국 근세 혁명의 기점이었다고 말해도 무방한 것이다.



여울물소리

황석영
장편소설

내 마음 정한 곳은 당신뿐이니· 세상 끝에 가더
라도 돌아올 거요
여인의 입을 통해 모자이크 벽화처럼 드러나는
구한말 신홍방동 이야기꾼 이신통의 일생

“이야기는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생겨나나?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나?
어떤 것이 남고 어떤 것이 사라지나?”

“강이나 바다에서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

이 여울의 사전적 의미다.

그리고 이는 작가가 바라보는 19세기 현실의 모습이다.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그 당시의 세파에 정면으로 맞부딪쳤지만 삶의 애환 속에서도 멋과 풍류를 즐겼던 악사, 소리패, 광대, 전기수 등이다.

이들의 소리 하나하나가 굵곡진 세상에 울려퍼지던 여울물 소리이며, 그중 가장 세차고 억세게 흐르던 물줄기가 바로 동학농민혁명일 것이다.

이야기꾼을 쫓는 여인

무언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작가는 이야기꾼으로 전국을 누비다 묘한 인연으로 천지도(동학)에 입도하게 되는 이신통을 내세운다. 그리고 그를 뒤쫓는 아내 연옥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즉, 이신통이 보고 겪은 사건을 연옥이 추적해 가며 되새기는 것이다. 이 되새김은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19세기 말을 바라보며 현실의 만만치 않은 무게를 우리에게 담담히 들려준다. 임오군란, 청일전쟁, 제물포조약, 동학농민혁명 등 굵직한 시대의 씨줄에 개인이라는 날줄들이 절묘하게 얹혀 들어가 짜여 만들어진 것이 이신통이 겪고 연옥이 듣게 되는 시대의 모습이었다.

시대를 흐르다

이신통은 서자로 태어난 신분적 한계를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자신을 검증해 보고자 과거를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나 객주에서 마주친 서일수를 통해 그것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관직의 꿈을 버린다. 그리고 이야기꾼의 재주를 살려 전기수, 강담사, 재담꾼, 광대물주 등 여러 모습으로 전국을 역마살이 붙은 것처럼 떠돌며 고통과 상처투성이인 근대를 보여 준다.

흘러흘러 그가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은 ‘사람이 하늘이다’라고 선언하여 시대를 뒤흔들었던 천지도(동학)였다. 그것은 그를 안주하지 못하게 했던 부패한 세상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가온 희망이며 시대의 가장 빠르고 세찬 여울물이었다.

동학과 동학농민혁명

엄격한 신분제도로 유지되는 유교적 세상에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놀랄만한 선언을 했던 동학의 출현은 그야 말로 하늘이 놀라고 땅이 뒤집히는 사건이었다. - 작가의 말 中

또한 작가는 이러한 생각을 말했던 최제우 선생과 그러한 사상을 평생 동안 도망 다니며 실천하고 퍼뜨렸던 최시형 선생 역시 큰 이야기꾼이었다고 언급한다. 이들이 이야기꾼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나갔고, 그 이야기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새로운 물줄기로 흐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신통은 우금치전투에 참여하여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여 연옥을 찾아온다. 상처가 아문 뒤 그는 다시 천지도(동학)에 목숨을 바치기 위해 길을 떠난다. 그에게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던 것이다.

소설 속에서 동학은 ‘천지도’로, 전봉준 장군은 ‘김봉집’으로, 최제우 선생과 최시형 선생은 ‘최성묵’과 ‘최경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작가는 너무나 사실적인 역사의 재생을 어느 정도 피하기 위하여 인물의 이름을 몇 자 바꾸거나 자와 호 또는 변성명을 이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시대를 바로 보는 듯 한 느낌이 드는 것은 당시의 사건과 인물들의 행적, 그들이 했던 말은 왜곡이나 변형 없이 인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내년이면 시대를 흘러온 지 120주년이 되는 동학농민혁명의 여울물이 용솟음치기를, 그리고 작가의 바램처럼 고통과 상처투성이의 ‘근대’가 마감되기를 바래본다.

기념재단

사방통문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안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2014년 각종 기념행사에 활용할 참신한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 행사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선양하고자 하는 내용

응모대상 | 전 국민

응모일정 | 2013. 7. 10(수) ~ 8. 31.(토)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1894@1894.or.kr)

당선작 발표 | 2013. 9. 30(월) (재단 홈페이지, 개별통보)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아니함

* 시상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예정

01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지난 7월 10일(수)부터 8월 31일(토) 까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하였다. 내년인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즉, 2주갑을 맞이하는 해로써, 기념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중이다. 재단에서는 120주년 기념행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 국민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참신한 슬로건을 공모하여 마감일 까지 총 574건의 슬로건이 접수되었다. 9월 26일(목)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총 8점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상식은 10월 18일(금)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 대회 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 주의 사항

- 영화 상영전 동학농민혁명 홍보영상 상영(20분)
- 대강당에 음식물 반입 금지(커피, 음료, 과자 등)
- 영화 상영 중 사진 / 비디오 촬영 금지
- 관람 질서를 위해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주세요(아이)

02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토요가족영화’상영

동학농민혁명교육관에서 지난 7월 13일(토)부터 격주로 토요가족영화를 무료로 상영 중이다.

토요가족영화는 유치원생·초등학생 가족과 일반인 가족을 대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7, 8월 중에는 월-E, 갓파쿠와 여름방학을, UP,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상영하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는 하모니, 마당을 나온 암탉, 인크레더블, 마음이를 상영중이다. 11월부터 12월 중 상영할 영화는 총 11개의 후보 중 기념관 방문객들의 양케이트 조사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03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유물구입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지난 8월 19일(월)부터 8월 26일(월)까지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을 구입하였다.

접수기간 동안 234종 426점의 유물이 접수되었으며, 8월 30일(금)에 김종만 국립전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흥성덕 전주대학교 교수로 구성된 분야별유물평가위원회를 열어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성 여부, 시대성 지역성 역사성의 진위여부, 기념관 소장가치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구입 할 유물을 결정하였다.

이번에 구입된 유물들은 2014년 120주년 특별기획전을 비롯하여 전시 연구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0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개관예정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지난 8월 20일(화)부터 9월 10일(화)까지 어린이전시실 개관을 위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위한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어린이전시실은 '1894년으로 가는 타임머신'이라는 주제로 입구에서 어린이전시실의 구성 취지와 전시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 한 후, 여러 개의 파트로 이루어진 전시물과 체험공간을 통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동학농민혁명의 전개과정과 주요 사건, 주요 인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관람 후에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린이전시실은 오는 11월 19일(화)에 개관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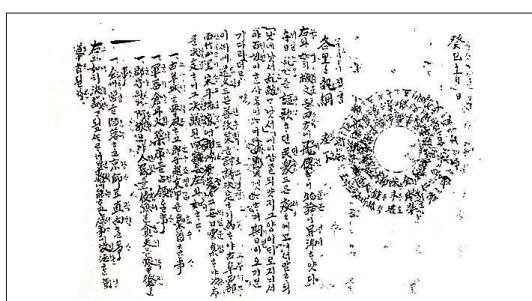




05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3년도 하반기 전라북도의회 업무보고

지난 9월 4일(수),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윤석모 사무처장, 양광철 기념관운영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하반기 기념관 업무보고를 하였다.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의원들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의 일반사항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여부, 재단 홈페이지의 사용방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예산 관련 질의를 하였으며,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과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06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준비회의 개최

지난 9월 6일(금) 보은문화원에서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 준비회의가 열렸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윤석모 사무처장, 이대봉 기념사업부장, 보은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구왕희 회장, 박진수 사무국장,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상임부회장, 최정길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준비회의에서 기념대회의 세부계획을 논의하고 조정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치러야 할 것이라 입을 모았다.

사발통문은…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통문(通文)이라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둉글게
빙 둘러 가며 적은 사발통문을 돌렸다.



07

2013년도 상반기 업무점검 실시

지난 9월 9일(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회의실에서 정남기 감사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013년도 업무점검을 실시하였다. 감사 및 이사들은 기념홍보사업, 연구조사사업, 기념관운영사업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2013년 상반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재단에서는 이날 점검사항에 대해 9월 16일(월)에 부서별 업무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08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 진행

'어제의 역사를 일깨워 미래가치를 창조한다'는 슬로건 하에 시행중인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애국애족의 정신으로 함양시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답사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 유적지에 관심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지난 3/4 분기 간에는 군산중앙고등학교 등 7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4/4분기에는 4개 단체의 방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5개 단체를 추가로 접수할 계획이다. (문의 : 063-538-2894)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지난 7월 5일(금), 정읍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19주년을 맞이하여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재인식'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읍시에서 주최하고 한국민족운동사학회에서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황민호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의 개최사와 김생기 정읍시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성주현 청암대학교 연구교수의 '사발통문의 재검토와 고부기포', 강효숙 원광대학교 교수의 '일본 언론에 나타난 정읍지역 동학농민혁명', 조성운 동국대학교 교수의 '황토현 전투의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 김이덕 중앙대학교 교수의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의 건립과 기억의 전승'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졌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동학농민혁명의 초기 전개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며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정읍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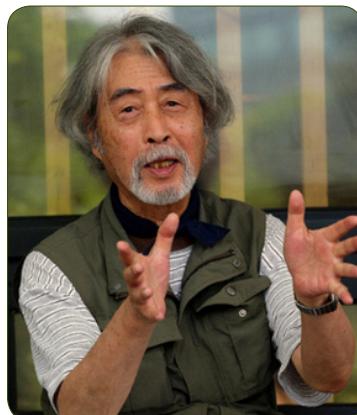


일본인 감독 '마에다 겐지' 동학농민혁명 영화 제작발표

지난 7월 23일(화), 일본인 감독 마에다 겐지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은덕문화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마에다 겐지 감독은 1999년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다큐멘터리 영화 '백만인의 신세타령'을 제작하여 한국 정부로부터 옥관문화훈장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임진왜란의 실상을 다룬 장편영화 '월하의 침략자'를 일본에서 개봉하는 등 과거 일본의 만행에 대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 고군분투 해 왔다.

그는 "역사이식에 큰 구멍이 나 있는 일본의 바람직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제대로 알리기 위해 동학농민혁명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할 것"이라 전했으며, "나아가서 일본과 일본인이 반성해야 할 점, 정치의 과제, 문화의 존재방식 등을 고찰해 이 영상작품을 100년 후까지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동학농민군 학살한 일본군병사 진중일기 공개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을 학살한 일본군 병사(쿠노스키 비요키치 상등병)의 종군일지가 일본에서 공개되었다.

해당일지는 이노우에 가쓰오 훗카이도대학 명예교수가 지난해 병사의 후손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나카쓰라 아키라 나라여자대학 명예교수,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와 함께 엮은『동학농민전쟁과 일본 : 또 하나의 청일전쟁』에 실려 공개되었다.

쿠노스키 비요키치 상등병은 동학농민군 토벌대대장 미나미 고시로가 이끈 후비보병 19대대에 소속되어 농민군 섬멸작전에 참가하였다. 일지에는 전국을 돌며 매일 12명 이상의 동학농민군을 처형했다는 기록과 더불어 일본군의 공식 처형기록인 230여명을 훨씬 넘어선 680여명을 참살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명성황후의 시해도 동학농민군을 학살한 후비보병들이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교수는 “병사가 직접 작성한 일기가 발견됨으로서 일본군에 의한 학살의 진상이 완전히 밝혀졌고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숨겨온 역사 왜곡의 진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료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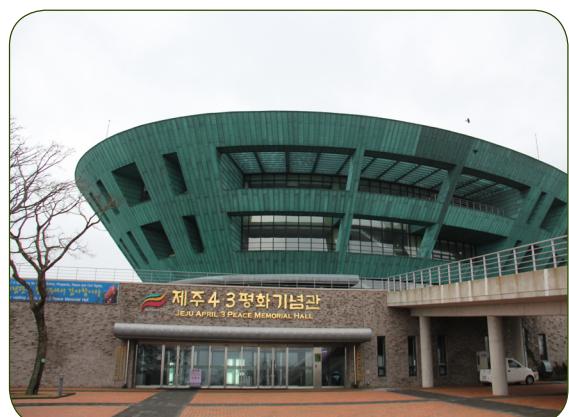


제주 4·3항쟁 국가추념일 연내 제정

제주 4·3항쟁 추념일이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제주 4·3항쟁 추념일 제정을 포함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현재는 대통령령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차관은 지난 7월 3일 KBS제주방송총국 토론회에 출연하여 내년 4·3항쟁 위령제는 국가에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이를 위해 올해 국가추념일을 제정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 차관은 위령제는 안전행정부가 주관할 것이며 4·3평화재단, 유족회, 제주도청과 합심하여 4·3기념일에 맞는 의미 있는 행사를 기획할 것이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3평화재단을 통해 유족에 대한 생활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법적근거와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포함되어 있어 4·3평화재단의 운영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하계단합대회 개최

지난 7월 18일(목) 북한산계곡 산장에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하계단합대회가 열렸다.

수도권 및 인접지방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하계모임은 이왕재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으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청취한 후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기념일 제정, 국가유공자 서훈,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및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단법인화 등이 거론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2차 부회장단 간담회 실시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는 지난 9월 12일(목)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실에서 2013년도 제2차 전국부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족회 임원진과 전국부회장 11명, 감사 2명이 참석한 이번 부회장단 간담회에서는 국회와 청와대에 진정한 답변에 따른 후속조치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임원(이사장, 사무처장)과의 면담 결과를 주제로 논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회와 협의하여 특별법의 개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경주시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추진

지난 8월 21일 경주시에서는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의 일환으로 수운 최제우 선생의 생가를 복원중이라 밝혔다. 경주시에서는 주요유적지 복원사업을 통한 학습체험시설로 활용, 유적간 연계성 향상 및 탐방로 등 기반시설 조성,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에 관련된 문화행사 개발, 동학예술제 등 문화축제 개최 등을 목표로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수운 최제우 선생 생가복원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제우 선생의 생가는 수운 최제우 유허비가 건립되어 있는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의 생가터에 안채와 사랑채를 복원할 계획으로 지난 8월 8일(목) 상량식을 가졌으며 내년 4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동학발상지 성역화사업이 완료되면 경주는 불교 유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문화를 포함하는 정신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제 4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정답

옹		눈		유	윤		능	내
며	ぬ	ゆ	ぬ		こ	れ	め	れ
	후			과	과	과	온	군
곤	크	국		과		과	곤	곤
코		ぬ	은		ぬ	한		한
온	운	고		온		온	온	온
온	온	고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온

제 4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47P 하단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관광해설사
김수웅(金秀雄)

가로열쇠

- 3.피를 부려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함 책임□□ 임무□□
- 5.나라의 정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곡(還穀)
- 6.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
- 9.신체에 직접적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권리
- 10.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전쟁이나 전투가 있었던 장소. 황토현□□□
- 12.내재하는 욕구나 감정 따위를 일시에 밖으로 터뜨림.
- 13.세상에 떠도는 소문을 두루 찾아 살핌.
- 15.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맏지 못하여 홀로 됨. 외교적□□
- 16.이야기의 첫 머리 話頭
- 17.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세 가지 세. 租, 廉, 調
- 19.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필요한 재료
- 21.동학을 3대 교주인 손병희가 개칭한 이름
- 23.예전에 죄인의 볼기를 치던 형구
- 24.중국 전설에 나오는 方丈山 蓬萊山瀛洲山을
- 26.정해진 값보다 더 높게 값을 매겨서 받는 것.
- 27.탐관오리의 □□□□, 농민수탈에 반발하여 일어난 민중혁명은?
- 30.법에 위반되는 것. □□를 저지른 사람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
- 31.세상의 모든 사람. 억조□/蒼生

세로열쇠

- 1.관찰사□□ 덕분에 비장 나리 호사한다
- 2.손자
- 4.남에게 붙잡힌 곳. 전봉준장군□□□는 순창군 쌍치
- 5.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
- 7.집강소를 총괄할□□□를 전라감영 선화당에 차림
- 8.일제 강점기 의학을 가르치던 전문학교
- 11.예견이나 추측 따위가 정확히 들어맞음
- 13.강제로 빼앗음. 경제적□□/식민지□□
- 14.조상들이 남긴 유산.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 15.정읍천,□□□, 원평천은 동진강의 주요 지류를 이룬다
- 18.전통적인 민간신앙과 유교, 불교, □□를 융합하여 동학을 창시
- 19.태안 백화산에 있는 유적으로 紋殺과 枝殺을 줄여서□□□□
- 20.간사한 신하. 선한 사람들을 음해하는□□들로 들끓던 조정
- 22.고려 조선시대 지방행정기구로 대□□□와 都護府가 있었죠.
- 24.끌이 세 갈래로 갈라진 창. 무당은 원손에 이것을 들죠
- 25.아기를갓 낳은 여자
- 28.과녁의 한 가운데가 되는 점. 화살이□□에 꽂히다
- 29.조개껍데기가 쌓여 이루어진 무더기貝塚

나눔꽃



지역별 동학농민혁명 유적지(2)

NO	지 역	유 적 지	주 소
1	무 주	무주 관아터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228-2 일대
		설천 전투지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903 일대
2	부 안	김기병 행적비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 116-1
		동학혁명백산장의비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 8-1
		백산성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산 8-1
		부안 관아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39-2 일원
		부안도소	전라북도 부안군 행안면 역리 283
		성황산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 산 4-1 일원
		이성렬영세불망비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면 석보리 224-1
3	순 창	전봉준 장군 피체지	전라북도 순창군 쌍치면 금성리 243
		사자암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신용리 609-1
4	익 산	여산동현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여산리 445-2
		갑오동학혁명기념비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617-5
5	임 실	삼요정	전라북도 임실군 운암면 선거리 713-6
		지천리 봉기터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지천리 329 일대
		허선 집터	전라북도 임실군 청웅면 옥석리 1093
		원촌전투지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84 일대
6	장 수	장수관아터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76 일대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가 갑오년에서 을미년과 병신년까지 활동하던

동학농민혁명의 주인공 녹두장군 전봉준(1854 · 1895)을

기리던 노래였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나는 파랑새가 꾀꼬리처럼 예쁘게 우는 귀여운 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소리도 우렁차지만 비행술까지 뛰어난 용감한 너석이었습니다.

파랑새는 손수 집을 짓지 않고 딱따구리가 쓰고 버린 둥지 등을 차지해 번식합니다.

둥지가 부족할 때는 까치의 둥지를 빼앗아 번식을 하는데

맹금류도 찔찔매는 천하무적 까지도 파랑새에게는 역부족입니다.

남쪽에서 월동하고 번식을 위해 장거리를 날아온 파랑새는

그야말로 산전수전에 공중전까지(?) 겪은 역전의 용사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녹두장군을 용맹스러운 파랑새에 비유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하 생략)